

갤럭시로 보는 세상 스마트폰 카메라 100% 활용법

글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mistyfriday@me.com



잘 찍고 못 찍고의 차이? 구도에 있다.

“딸아이가 찍은 사진은 예쁜데 왜 제가 찍은 건 마음에 안 들까요, 선생님?”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진행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자녀와 같은 날, 똑같은 스마트폰을 구매했지만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어머니 뺨 수강생의 사진들을 몇 장 넘겨 본 내 답은 이랬다. “수평, 수직만 잘 맞추셔도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사진을 잘 찍는 것과 못 찍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카메라에 대한 지식? 얼굴은 작게, 다리는 길게 찍을 수 있는 기술? 좋은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체력과 재력? 셋 다 맞을 수도, 모두 틀릴 수도 있다. 각자의 취향과 감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현’이란 관점에서 보면 정답에 가까운 구별법이 있다. 첫째, 주제가 제대로 부각됐는가. 둘째, 그것이 사진을 감상하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됐는가. 그리고 이 성패는 구도에 의해 갈릴 때가 많다. 카메라가 노출과 색감을 자동으로 맞춰 주는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구도의 중요성은 곧 사진 실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보다 더 커졌다.

좋아 보이는 사진들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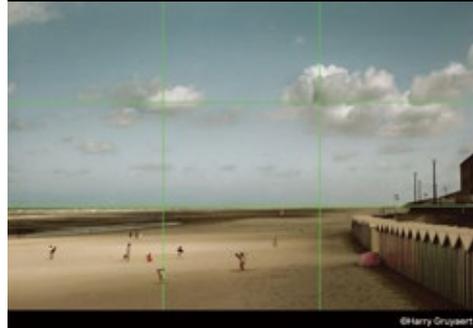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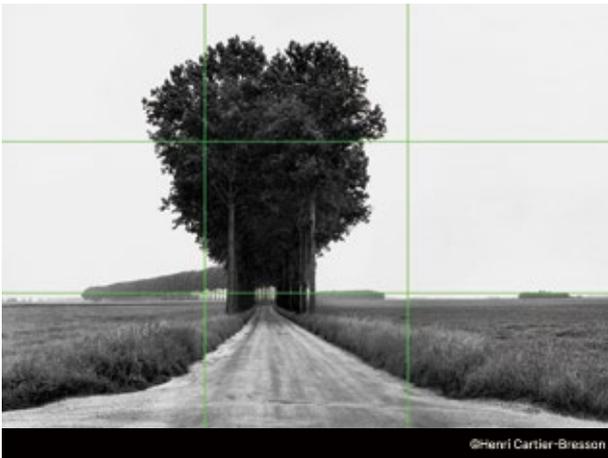
보는 눈은 달라도 좋은 사진들은 분명 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 보러 가는 유명 작가의 명작들은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도 열여섯, 일곱은 좋아할 만한 작품이 하나쯤 있을 것이다.

무엇이 그 사진들을 좋아 보이게 하는 걸까? 작품마다 서로 다른 매력이 있겠지만 확실한 건 마음을 움직이는 사진들은 대체로 좋은 구도로 재단되어 있다는 것이다. 프레임 속 요소들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사진에 활력이 생기기도, 이야기가 담기기도 한다. 때때로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좋은 구도에 대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200여 년의 사진 역사 속에서 검증된 기본 공식은 있다. 가로, 세로로 각각 화면을 삼등분하는 격자선을 활용하는 것.

좋아하던 작품들을 몇 장 골라 그 위에 네 개의 선을 그어보자. 어렵지 않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풍경 사진의 경우 지평선, 수평선 등의 기준선을 두 개의 가로선에 맞춰 2:1 또는 1:2 비율로 공간을 분할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하늘과 땅, 바다를 적절히 배분했을 때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주제가 명확하게 전달된다. 스마트폰 속 여행 사진들 중 잘 찍었다 싶은 사진에도 격자선을 그어보면 분명 위와 같은 구도로 촬영됐을 것이다.

예제 마음을 움직이는 사진들을 만난다면 격자선을 그어 보자. 좋은 구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격자선 설정 - 좋은 구도를 설정하는 쉽고 확실한 방법

TIP



시가 최적의 구도를 추천하는 '촬영 구도 추천 기능'도 좋지만 '수직/수평 안내선'을 설정해 직접 구도를 설정해 보자.

촬영 화면에 표시된 네 개의 선이 수직, 수평 교정과 다양한 구도 설정에 도움을 준다.



해안선을 격자선의 두 개의 가로선에 각각 맞춰 배치한 사진.

넓게 배치된 면적에 따라 화창한 날씨, 이국적인 도시 풍경이 부각된다.

여행지의 멋진 풍경을 앞에 두고 어떻게 찍어야 할지 망설이다가, 뒤로 늘어선 줄 때문에 마음이 바빠서 보이는 대로 찍는 데 급급했던 경험이 있다면 격자선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진이 눈에 띄게 근사해진다.

카메라 앱의 설정(⊙)을 실행한 뒤 수직/수평 안내선 옵션을 켜면 촬영 화면에 격자선이 표시된다. 이를 안내선 삼아 구도를 설정해 보자. 효과적인 연습 방법은 지평선/수평선 등 기준선을 정한 뒤 격자선의 위, 아래 가로선에 맞춰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는 것.

1:2, 2:1 구도로 촬영된 결과물들을 비교하면 어떤 구도가 풍경에 어울리는지 혹은 주제를 부각하는 데 적합한지 알게 될 것이다.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격자선을 의식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구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적절하고 또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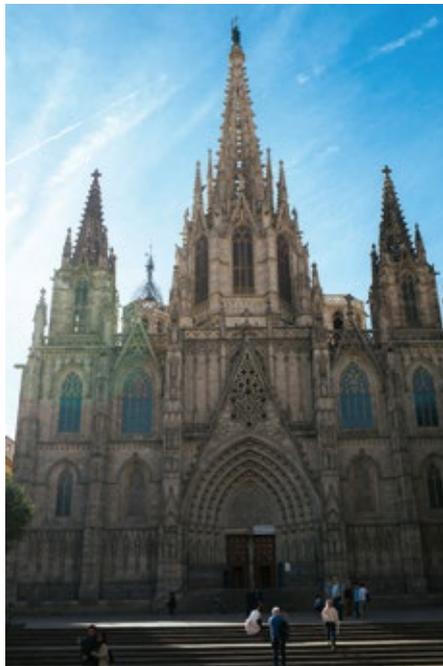
사진 클래스를 진행하며 늘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수평, 수직의 중요성’이다. 그동안 만난 수천 명의 수강생들 중 도무지 사진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대부분은 그만의 시선과 감각을 표현하는 기술이 부족했을 뿐, 수직, 수평에 신경 써서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금방 근사한 작품을 만들어 냈다.

화면 구성과 주제 배치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지만 격자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직, 수평을 교정하는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건축물의 외벽과 기둥, 수평선/지평선 등을 가까운 격자선에 맞춰 보는 것.

동일한 환경에서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하면 수직, 수평을 고려한 사진이 피사체의 형태를 온전히 표현하고 보기에도 편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안정한 구도에서 주제는 전달력을 잃기 마련이다. 구도를 설정할 때 수직, 수평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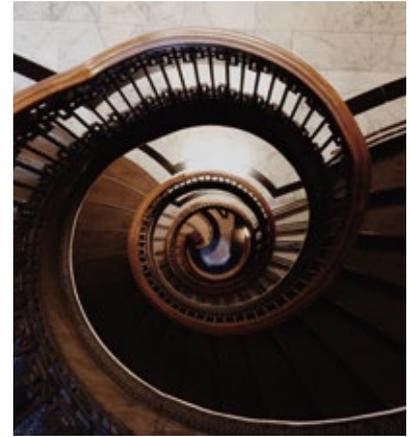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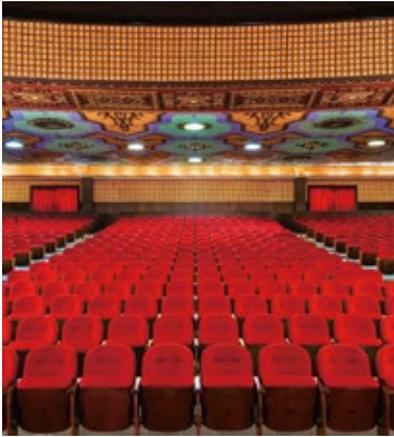
격자선은 수직, 수평을 맞추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

수직, 수평을 잘 맞춘 사진은 피사체의 형태가 돋보이고 전체 프레임이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따라해 보자, 곧 나만의 언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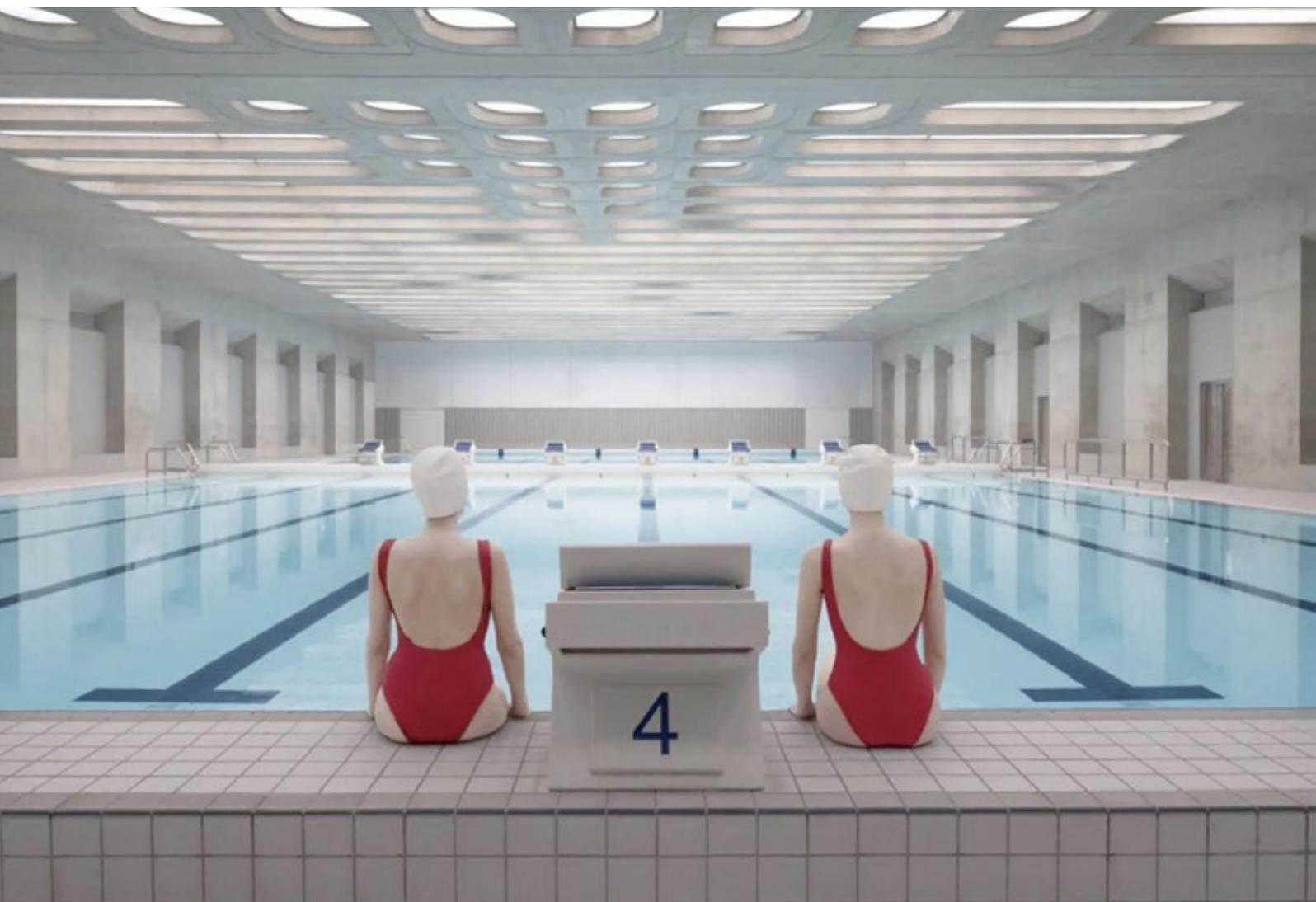
* 우연히 웨스 앤더슨(@accidentallywesanderson)의 대칭 구도와 특유의 색감은 SNS 여행 사진에서 하나의 장르가 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Accidentally Wes Anderson

좋은 사진을 찍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수직, 수평 교정이라면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은 많은 사진들을 보는 것이다. 나아가 좋은 작품의 구도와 표현 방식을 따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손바닥 위에서 전 세계 작품들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 교재가 될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끌어 지난해 서울 전시 등 오프라인까지 활동 범위를 넓힌 우연히 웨스 앤더슨(@accidentallywesanderson)의 작품들 역시 참고할 만하다. 가장 큰 특징은 자로 잰 듯 정확하게 맞춘 좌우 대칭과 수직, 수평, 대상의 조형미를 강조한 표현 방식이 특이나 여행 사진과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지난해 유럽과 미국을 여행하며 그의 구도를 따라 해 보았다. 이전의 여행 사진들과 다른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고풍스러운 건축물을 찾고 풍경이 대칭으로 보이는 위치를 체크하는 과정도 여행의 새로운 즐거움이 됐다. 이 역시 좋은 구도의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필자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올림픽스 마스터즈 포토그래퍼.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진행

저서: '어쩌면_할 지도', '인생이 쓸 때, 모스크바', '그래서 제주'(공저)